

37 朝鮮年鑑 (1948) 조선연감

1947년 / 조선통신사 / 472면 / 14,10-10 조 1947

1947년 12월, 서울에 있는 조선통신사에서 편찬한 자료인데 1946년~1947년 간의 기록이다. 알기 쉽게 말하면 해방 후 최초로 발행된 연감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면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특히 군정 2년 간의 행정과 재정에 관하여 상세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 중 ‘사회일지(社會日誌)’가 흥미로운데 ‘정당 단체일람’과 ‘정계 인명록’도 재미 있는 항목이다. 특히 ‘정계 인명록’에는 김일성(金日成)을 비롯한 김원봉(金元鳳), 김책(金策), 무정(武亭) 등 북한의 공산주의자들도 끼어 있다.

이 연감은 모두의 ‘해방경위’란 항에서 미국의 태평양전쟁과 1945년 8월의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의 원폭투하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우리 민족해방의 계기를 8월 9일의 소련군 참전(만주침공)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해방 직후 남한에는 상당수의 공산주의자들이 급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언론기관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해방 직후 우리는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그것은 필자가 다른 곳에서 언급한 일이 있는데, 1945년 4월부터 해방이 된 후 9월까지 48억 100만 엔이라는 화폐를 찍어냈기 때문이다. 조

선총독부 종정(終政)기록에 따르면 해방되던 해 봄부터 가족이 많은 공무원이나, 꼭 있을 필요가 없는 일본인들을 소환해서 미리 고향으로 돌아가라면서 막대한 퇴직금을 지불하기 위한 조치였다. 본 연감은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물가 폭등을 일으켰다고만 기술하고 있다. 이 인플레이가 해방 후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해방 직후인 1946년 말 현재인구는 1,936만 9,270명이었고, 해방 1년 전인 1944년 말 인구는 1,589만 110명이었다. 1946년 인구를 도별(道別)로 보면 경남이 318만 5,833명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이어 경북, 전남, 경기도의 순이고, 도시는 서울시가 114만 1,766명으로 단연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40만 156명, 대구 26만 9,115명, 인천 21만 5,784명의 순으로 되어 있다.

한편 항만시설은 부산항이 겨우 8천 톤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해방 후에 준공되었다. 선박은 1천 톤 이상의 강철선이 15척밖에 없었고, 트럭은 8·15 직전 남북을 통틀어 3천 대밖에 없었다.